

#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a href="#">자세한 내용보기</a>				
COI	<a href="#">G700:RA106+01400351-01400351:20090629:01400351.2009062910002126684:1</a>	제호	13225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6

## 문화재단 운영계획 ‘일부 수정될 듯’

자문위서 사무처장 지원자격 등 수정 지적

[대전=중도일보] 문화재단 출범이 내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사무처장 자격요건이 변경되는 등 운영계획 일부가 수정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직제와 직원선발 계획 등을 담은 운영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사 관계자와 일부 자문위원 등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는 시의 운영계획안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전국 문화재단 운영계획안 중 최고의 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사무처장의 지원 자격과 임기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가장 크게 다뤄졌던 부분은 전임계약직 ‘가’급인 사무처장의 자격요건으로 자문위원들은 시가 제시한 학력과 경력 등의 요건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준 자체가 여타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비해 너무 높은 데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정 직종의 경력자 조항이 있어 자칫 문화예술계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가 제시한 사무처장의 지원 자격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의 지원 자격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자문위원들은 “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부 자문위원은 현재 문화재단 전임계약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인 사무처장의 임기를 대표이사처럼 3년 임기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가능한 지적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직종의 경력자 조항은 타 지역의 사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인데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기 문제는 전임계약직으로 출발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성과 등을 반영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의 발기인대회는 내달 10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며, 시는 그 전까지 최종 운영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강순욱 기자 ksw@

기여자	강순욱 기자	제작일	2009-06-29	등록자	중도일보
저작권자 역할	언론사	기여자 ID	romero777	컨텐츠 유형	TEXT
저작권 정책?	본 기사는 <b>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b> 로써 사전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딥링크 방식이나, 프레임 방식 등 무단 게재를 허용치 않습니다.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a href="http://dnc.kpf.or.kr/d1.htm">http://dnc.kpf.or.kr/d1.htm</a> ) 연락처 : (02) 2001-7859				